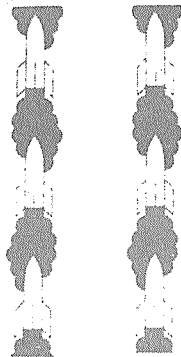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(1989. 2. 1~2. 28)

- 2. 1 : 通信公, 울릉~육지간 해저 광케이블 건설계획에 착수, '93년에 완공할 계획.
- 2. 2 : 遞信部, 방송통신위성기술 종합개발 방안을 마련, 위성을 이용한 지구국 시스템 기술을 비롯 위성통신기술을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.
- 2. 3 : 日 通産省,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에 대한 대화를 심도있게 한다는 방침하에 民·官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회 설립을 검토.
- 2. 3 : 工振庁,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단행한다고.
- 2. 3 : 工振庁,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운용요강 중 KS사후관리 부문을 강화하기로.
- 2. 5 : 中国貿易促進委, 한국의 민간 무역단체들과 韓·중간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를 협의할 계획.
- 2. 5 : EC,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反 덤핑조사 종결 예고.
- 2. 8 : 工振庁,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형식승인대상 축소, 안전도가 높은 2종 신고제로하기로.
- 2. 9 : 商工部, 팩시밀리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'93년까지 국산화율을 95%까지 끌어올려 대량생산체제를 유도키로.
- 2. 9 : 政府, 淸EC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올해 3차례의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유럽지역에 파견키로.
- 2. 9 : 遞信部,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통신공사, 데이터 통신, 전자통신연구소, 통신진흥 정보문화센터 등으로 역할 분담,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.
- 2. 10 : 科技処,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신기술 기업화를 촉진하는 일환으로 신기술개발지원공단을 설립 운영하기로.

- 2. 10 : 遞信部, 방송통신위성시대에 대비, 고도전파기술을 적극 개발키로.
- 2. 11 : 商工部, 원화절상, 임금인상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수출업체의 경쟁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출산업실태조사를 실시키로.
- 2. 11 : 韓銀, 원화 절상과 임금 상승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어 1/4분기중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수준인 7억 2,000만 달러에 그칠 전망이라고.
- 2. 13 : 通信公, CATV 방송망 시범 계획을 마련, 연내에 서울, 대구, 등 2~3개 대도시 지역에 설치해 시험 운용키로.
- 2. 14 : 科技処, 光州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官·産·學·研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光州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건설용역 자문단 구성.
- 2. 14 : 特許庁, 오는 '93년까지 200억원을 투입, 5개년 계획으로 지

- 적소유권 종합정보전산망을 구축키로.
- 2. 17 : 通信公, 오는 7월부터 새모델 G, 팩시밀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 서비스 된다고.
- 2. 17 : 工振庁, KS 표시 허가와 KS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강화된다고.
- 2. 23 : EC, 작년에 EC가 3.7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. 금년과 내년에 3%의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. 이같은 호황은 '92년 통합을 앞두고 설비투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.
- 2. 23 : KDI, 정보통신분야, 정보교환회선 분야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의 분할독점보다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정보통신역무제공급(DB, DP)은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,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.
- 2. 24 : 韓銀, 1월중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모두 5억 3,6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, 무역부문에서도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4억 3,000만 달러의 흑자를 올렸다고.
- 2. 25 : 通信公, 행정기관 전용 통신망을 연내에 계통, 업무능률 향상과 비상시 주요 통신 확보를 위해 2만 2,000회선을 설치한다고.
- 2. 26 : 政府, 미국의 불공정무역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선정과 관련, 통상담당 관계자들을 미국에 급파 통상현안 조기 타결 총력.
- 2. 27 : 工振庁, 정보처리분야의 표준화를 지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진청내에 정보처리표준과를 신설한다고.
- 2. 27 : 遞信部, 서로 다른 전산망과 異機種 컴퓨터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전산망 표준화작업 본격 추진.
- 2. 28 : 工振庁, 공산품 사전검사제도가 품질검사에서 안전검사 위주로 전환된다고.